



89

영업지점장에서 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와 우울증

성별	남	나이	42세	직종	지점장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손ㅇㅇ(남, 42)은 1982.에 화장품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으며 1996.1. 지점장으로 승진하였다. 2002.7.24. 공황발작이 발생하여 정신과에서 치료 중이다.

2 작업환경

손ㅇㅇ은 지점장으로 소속 대리점의 판매와 관리를 담당하였다. 각 지점은 영업실적과 대리점 관리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평가 결과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점장은 시간과 일정에 대해 자기 조절이 가능하며 6시에 퇴근하였고 손ㅇㅇ의 지점은 영업실적 부분에서는 해당 지역 6개 지점중 2위를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2002.7.14. 오후 퇴근하면서 터널 속에서 운전 중 두통,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2개월 후 회의 중 두통이 다시 나타났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 당시 불황이어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고 하며, 질병과 퇴직에 대해 항상 걱정이 된다 하였다. 임상심리검사에서 의존 욕구, 독립성, 주장성에 대한 갈등있고 강한 모습과 공격적이고 건들거리는 태도를 보이며 판단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경향이 많았고, 명예퇴직 될 것 같은 분위기와 공황발작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상에 큰 손상을 받은 듯하였다.

4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최초의 증상발현이 공황발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되나 이후 지속적인 공황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보아 일반불안장애의 가능성이 더 높다. 직무는 업무 부담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업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큰 직책이다. 영업성적도 비교적 상위에 속하였으므로 특별히 직업성 스트레스가 많다고 할 수는 없었다.

5 결 론

손○○의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 ① 증상과 경과로 볼 때 일반적인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 ② 업무가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일으킬 만한 스트레스가 있는 업무가 아니며 오히려 의사자율성이 높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전이 있고,
- ③ 불안장애에 대한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업무 중 노출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